

## 함께 살리는 생명

- 금평교회와 향린교회의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

이 세 우(목사, 전북 완주 금평교회)

### 1. 시작하는 말

향린교회와 금평교회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6주년이 지났다. 1994년 12월 UR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와의 만남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이듬해인 1995년에 양 교회 간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매결연의 참뜻은 무엇보다도 농촌을 살리고 지키고자 하는데 있었다. 여기에 교회가 예외가 될 수 없었고 누구보다도 앞장 서야 된다고 양 교회는 고백을 하였다.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는데는 도시와 농촌의 교감과 교류, 연대가 중요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것이 시대적 요청임을 믿었다.

자매결연을 맺은 지 7년의 기간이 흘러갔다. 이제와 보건대 그 취지와 결의에 우리의 몸부림이 얼마만한 영향과 결과물들을 이루어 냈는지는 아직까지도 회의적이며 비관적이기까지 하다. 도·농교류의 실제적인 어려움은 말하지 않더라도 농촌현실은 그때와 비교해서 보면 오히려 더 나빠져 있을 뿐이다. 7

년 기간 동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결과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와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또 어떤 바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누군가 이러한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며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내려도 현재로써는 마땅히 대답할 말이 공색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방법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실천적이며 장기 대안적이고 실효성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제시 해 주길 바랄 뿐이다. 가장 유일하며 핵심적인 농촌살리기 대안과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지난 7년 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조급성이 일을 어렵게 풀어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 2. 금평교회와 향린교회와의 자매결연 과정

우리나라의 최대 곡창지대인 그리고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와 일제 수탈의 본 고장이기도 한 김제평야, 그 끝자리에 위치한 금평교회와 서울의 한 북판인 중구 명동에 위치한 향린교회를, 우루과이라운드의 거대한 폭풍우 앞에 초라하게 떨고 있는 농촌현실은, 선택의 여지없이 두 교회를 자매관계로 붙잡아 매도록 만들었다.

애초 금평교회와 향린교회는 한 교단(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라는 점 이외에는 그 어떤 연관도 없었다. 금평과 향린의 거리는 차로 3시간 이상이 걸린다. 향린은 내심 자매교회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가끔씩 교인들이 찾아가 농사 체험을 하면서 주말 농장이나 전원 생활 비슷한 생활도 꿈꿨던 것 같다. 그밖에도 모든 것이 달랐다. 농촌과 도시인의

생활적인 삶과 교인들의 신앙양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성서도 금평교회는 개역성경을, 향린교회는 공동번역을, 여호와를 금평은 하나님으로, 향린은 하느님으로 고백하며 기록하였다. 예배의식과 신앙고백의 내용도 편차가 심했던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UR의 파고와 긴급한 위기는 이런 차이점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농촌위기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극복의 대상이었지 아무런 장애의 요인이 되지 못했다. 또한 차이점이 존재할 때 그 차이점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이를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다운 자매 결연 정신에 합당한 것으로 서로가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그 당시 가장 농목은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와의 자매결연사업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2쌍이 이미 결연 의식을 마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큰 도움은 우리를 자매결연교회 제3호로써 성사가 되도록 기여를 하였다. 그래서 1995년 6월 18일 주일에 '자매결연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며 양쪽교회 교우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농촌교회인 금평교회로 달려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 자매결연공동선언문

우리 사회는 근대화의 추진 이후로 반성 없는 산업화와 끝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결과, 생태계가 거의 회복 불가능의 정도로 심각히 오염, 파괴되고 민족의 젖줄인 농촌이 붕괴되어 가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민족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세에 의해 지난 반세기동안 분단된 채 서로 적대해 오면서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것은 우리 민족 공동체 전체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총체적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선교, 곧 교회의 선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땅에 생태계의 살림과 민족 공동체의 참된 해방·자주·통일이라는 것에 우리는 인식을 같이한다.

이러한 역사적, 선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북의 농촌에 위치하고 있는 금평교회와 서울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향린교회가 오늘 자매결연 관계에 들어간다. 우리 두 교회는 그 창립 정신과 살아온 역사가 다르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의 성분이 다르며,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다르고,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선교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 등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과 하나됨과 친교를 믿는다.

오늘 우리 두 교회는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과 우리가 각기 처한 농촌과 도시에서 우리들의 가정적, 교회적, 사회적 삶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다짐한다.

### 우리들의 다짐

1. 금평교회와 향린교회는 농촌과 도시,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운명적으로 하나이며 서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운명공동체임을 인식한다. 농촌이 죽으면 도시도 죽고, 농촌교회가 죽으면 도시교회도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에 우리 두 교회는 그 삶과 선교 활동에 있어서 서로 연대하고 격려하며 협력하고 돕기로 다짐한다.
2. 우리 두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인간의 모태, 환경, 짐, 젖줄인 자연과 생태계를 살리고 보존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임을 믿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회개를 통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반성하고 바꾸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수입식품을 우리의 식품으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자기 중심적인 생

활태도와 방식을 공동체 중심적인 생활태도와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3. 우리 두 교회는 민족 공동체를 위해 부름을 받은 민족 교회임을 인식하고 우리 교회의 삶과 선교에서 민족의 역사적 유산, 전통, 문화, 정서 등, 민족적 특성을 가진 민족 교회가 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특히 민족의 화해와 통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이 한반도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의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믿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두 교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통일염원 51년 6월 18일  
금평교회 향린교회 교우 일동

참고적으로 그 날 예배를 드리면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날 강단 장식의 글씨가 '향린-금평 자매 결연 예배'로 되어 있었다. 농촌교회는 예우 차원에서 그런 배려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질문과 이의 제기가 있었다. 도시에서 온 분 중의 한 분이 기억 나온 순서로나, 연배로 보나, 농촌과 도시의 중요성으로 따져도 모든 면에서 금평교회가 앞서므로 이제부터는 모든 공식적인 표기를 향린-금평이 아니라, 금평-향린으로 할 것과 금평교회의 창립 연도가 향린교회보다 6년이 앞서므로 금평이 언니, 향린이 동생 관계임을 분명히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시종일관 이런 분위기와 입장 속에서 자매결연은 시작되게 되었다.

### 3. 자매결연 내용

#### 1) 강단 교류

교회간에 자매결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목회자의 관심과 참여가 그리고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목회자의 의지를 북돋고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데는 강단 교류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7년 간 단 한 회도 거르지 않고 이를 지켜오고 있다. 1년 간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 때를 이용하여 전파하고 있다.

자매결연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목회자간의 교류는 결연사업의 풍부한 바탕을 이루는데 기대한 만큼 그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금평교회 목회자는 총회 도시농어촌선교주일(매년 3월)에, 향린교회 목회자는 자매결연주일(매년 6월)에 자매교회를 방문하여 설교를 한다. 설교내용은 자매결연 의의를 다시 되새기고 농민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년 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것으로 주로 채운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원을 위한 공감대를 갖도록 노력한다.

## 2) 인적교류

### (1) 교우들끼리의 민박

농촌교회 도시교회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폭넓게 전개하는데 있어서 전 교우들의 참여와 관심은 목표이면서 이는 장기적 전망을 세우는데 있어서 필수적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2년마다 비교적 이동이 간단한 농촌교회 전 교우들이 도시교회를 방문하여 연합활동을 하기로 하고 현재 2회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농촌교회 교우들 60여명이 토요일 오전에 서울에 도착하여 도시교회가 관계하고 있는 선교지역과 문화유산 등을 관람한 뒤 도시교회 각 가정에 농촌교회 교우들 한 가정씩 짝을 지어 보내고 이들이 서로 밤을 지새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민박을 하게 된다.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누가 먹는지, 내가 먹는 농산물이 누가 농사지는 것인지를 서로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다. 하룻밤을 보낸 뒤 함께 도시교회로 와서 공동예배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동식사를 전체가

돌러앉아 함께 나눈다. 이어서 또 다시 서울 유명지역을 관광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각자의 일터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의 교통비를 제외한 전체적인 비용은 도시교회에서 담당을 한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민박을 할 때 서로의 입장과 형편을 고려하여 목회실에서 상호간의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민박가정을 사전 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높은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농촌교회는 딸네 집에 가는 심정으로, 도시교회는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가고 있다.

### (2) 어린이·청소년 수련회를 농촌교회에서

도시에서의 삭막하고 의례적인 여름행사와 수련회를 자매교회인 농촌교회에서 함께 연합으로 실시함으로써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인 이들이 자매 관계를 어려서부터 몸으로 익힘으로서 앞으로 잘 계승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 (3) 농사 지원 손길

매년마다 도시교회 대학부와 청년부, 장년부 교우들이 2회씩 내려와서 농촌교회에서 짓고 있는 논농사를 도와주고 있다. 무농약 농사이기 때문에 거의가 풀뽑기 작업인데 자매교회의 손길을 통해서 제초작업은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마다 거의 2회씩 10명에서 20명씩 농활대원을 조직해 내려와, 서투르지만 비지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 (4) 의료봉사활동

도시교회의 교인 구성원들 중에 의사들이 많이 있어 그분들이 팀을 이뤄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찾아가 정기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펼쳐 왔었는데 자매결연이 시작되면서 이를 확대하여 자매교회에서도 의료봉사활동

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들도 이제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마다 내려와 완전 무료로 정성을 다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는 대부분이 대학교수들로써 구성된 20여명의 의료진들이 참가하는데 자매결연주일에 이들이 모두 참여해 이 날은 대형종합병원을 옮겨 놓은 듯한 진풍경을 교회 앞마당에서 볼 수 있다.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검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종합적인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치료와 예방을 중심으로 진료를 정기적으로 하다보니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림은 물론 인근 지역예까지 소문이 나 진료순서로 다투는 모습까지 발견되곤 한다. 한번 실시할 때마다 약을 제공하는 양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시설, 교통,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약 3-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진료를 통해서 농촌에서는 농부병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3) 물적교류

#### (1) 농기계 지원

생명농사를 안정적으로 짓는데 필요한 것이 농기구다. 이를 도시교회에 지원 요청하면 바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교회가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와 풀 깎는 기계 등이 도시교회의 지원으로 마련된 것이다.

#### (2) 프로그램 지원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와의 자매결연이라고 할 때 우선 떠오르는 것이 일방적인 시혜 차원의 만남이다. 이러한 관계는 양 교회 모두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장기적일 수 없게 만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 교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노인



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 결식아동돕기사업,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사업, 지역 현안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겉으로는 도시교회로부터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보면 엄청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는 쪽도 의미 있는 사업으로 여겨 기쁘게 참여하고 있고 받는 쪽도 책임감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

### (3) 농산물 직거래

현재 농촌교회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기농 쌀 전량이 자매교회인 향린교회에 판매되고 있다. 쌀 30가마 정도가 해마다 자매교회 교인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가격으로는 7-8백 만원 정도가 된다. 그밖에 교인들이 농사지은 고추, 고구마, 감자, 호박, 마늘, 깨, 콩 등 잡곡류와 김장용품, 그리고 된장, 고추장, 기름 등이 주문에 의해 직거래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결정은 전적으로 생산자인 농촌교회와 교우들이 책임있게 의논하여 결정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연 매출액이 3-4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 4. 자매결연 전망과 과제

기독교장로회 교단 내에서 자매결연이 도시교회와 이루어진 곳이 4쌍인데 지금 현재 3쌍은 거의 관계가 단절되고 유일하게 우리교회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양 교회의 목회자의 교체가 그 원인일 수도 있으나 자매결연사업이 그리 간단한 과제가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농민선교의 중요한 내용이면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핵심이다. 이는 결코 놓쳐서도, 포기해서도 안 될 선교적 과제이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지 않기를 바란다. 농촌과 도시의 양 교회가 주일날 서로 이름만 불러주면서 기도

를 한다고 해도 이는 소중한 것이며 자매결연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일은 대단히 귀찮은 일이다. 괜히 시작했다고 후회감이 밀려 올 때도 많이 생길 수 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 4-5층까지 쌀 한 가마씩 질러 메고 몇 번씩 오르내린 경험이 있다. 도시교회 교인들에게 배달을 하면서 ‘아저씨, 아저씨’라는 호칭을 여러 번 들었다.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대로 어려움이 많다. 교회가 시장관처럼 변한다거나, 농산물이 썩어 나가 팔아 주기가 민망하다거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거나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양 교회는 알 듯 모를 듯 이름 모를 미소와 흐뭇함이 새록새록 피어남을 볼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농촌교회를 돕는다고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도시교회가 더 많은 도움과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도시교회 교인들이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진 것 같다는 고백을 틀림없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와의 자매관계를 가지면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자 교육과 소비자 교육이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안정적인 도·농교류의 전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도중에 목회자가 임지를 바꿀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평신도들간의 충분한 교감과 경험이 쌓여 있다면 이동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좋아 질 전망이 없다고 하는데 있다. 농촌교회가 깊은 수렁 속에 빠져있다고 말하는 것조차 식상해 버린 지 오래다. 여기에 농촌목회자로 오늘 우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와의 연대를 통한 방어망을 단단히 세울 필요를 느낀다. 그 길이 힘들지라도 도·농 자매결연교회가 하나 둘씩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